

“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

대법 “휴일 포함시 개정법과 모순 안정성 깨뜨려” 대법관 5명 반대의견… “휴일은 연장근로에 해당”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시간은 1주 간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옛 근로기준법상 1주당 52시간 외에 휴일 추가 근로가 가능해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즉,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 포함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 문제로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부 의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서 “이는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동 관행과 관련 소송 실무 등을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와 다른 해석은 이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면 사업장규모별로 순차 적용하기로 한 개정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며 “결과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우숙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옛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휴일근로는 최소한의 휴식시



러시아 국민방문 나서

러시아 국민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간 제공 등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 취지가 있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 환경미화원들은 주중 5일에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이틀에도 하루 4시

간씩 근무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휴일근로수당만 주고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자 이를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이 소송을 냈다. 원심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라며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 2월 근로시간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그 시행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옛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휴일근로 관련 기존 다름들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수의견은 개정 근로기준법 규율 내용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직장 내 성희롱 등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평화당 조배숙 대표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익산을)은 21일,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을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이 기준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추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성폭력, 성희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조배숙 대표는 “우리나라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상위법 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 도당 전복현안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운덕)은 2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소속 단체장 당선인들과 첫 상견례를 갖고 지역 당면 과제 해결에 지혜를 모으고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든든한 지방정부 전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프랑수아 출장 중인 김승수 전 주시장을 제외하고 김인준(군산), 유진섭(정읍), 이환주(남원), 박준배(김제) 당선인 등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김운덕 도당위원장과 이춘석 중앙당 사무총장, 전북지역 각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6.13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회까지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도민들 지지를 받았지만 그만큼 큰 책임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저를 포함해 선출을 받은 당선인들은 같은 당 원인으로 시민, 도민들을 위해 진심어린 맘으로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 “수사권 조정 경찰 책임감 높아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도출과 관련해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정안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과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일정한 견제장치를 갖겠지만 본질적으로 경찰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8전9기 신화’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자란 곳은 익산’

송철호(69) 울산시장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이 초중학교 시절을 익산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송 당선인은 ‘8전9기’의 선거 신화를 쓴데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막역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져 익산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1987년부터 울산에서 노동변호사로 활동하며 ‘울산 노무현’으로 불린 송 당선인은 익산시 팔봉동 이재 마을에서 초중학교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팔봉동 이재 마을 한 주민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은 송정호씨



다”고 말했다.

부산 출생인 송 당선인이 익산시 팔봉동으로 이사온 때는 초등학교 1학년때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익산에 계시던 할머니네에 맡겨졌기 때문이라는 것.

이때 송 당선인은 팔봉초등학교와

남성중학교를 졸업했다. 송 당선인의 형인 둘째형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은 익산 중앙초등학교와 남성고를 졸업했다.

송 당선인 할머니와 가족 등은 이후 아버지가 있는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한편 송 당선인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울산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는 부산·울산·경남을 대표하는 이른바 영남 3대 인권변호사로 절친한 친

구사이로도 유명했다.

송 당선인은 1992년 14대 총선 당시 선배 노무현의 권유로 울산 중구 국회의원에 처음 도전했다. 이후 민주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 8전8배의 고난의 정치 역정을 겪게된다.

송 후보의 고향이 전라도라는 흑색선전이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후 선거 때마다 ‘타외에 의해’ 고향이 전라도로 바뀌면서 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것.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은 8차례나 남아한 끝에 이번에 비로소 당선돼 8전9기의 신화를 창조하게 됐다. /익산=우병희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